

리오폴드 블룸의 인간형 연구

김 문 숙

1. 들어가는 말

『율리시즈』(*Ulysses*)의 집필기간(1914-1921)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아일랜드의 유혈 투쟁 및 반식민지 게릴라 전쟁 기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1914년에 아일랜드 지원군 동원령(Irish Volunteer Mobilization)이 있었고, 더블린의 중·북부 지역을 온통 폐허로 만들며 오백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이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부활절 봉기가 1916년에 발생한다. 그리고 분리주의를 천명하는 신 페인 아일랜드 의회(Sinn Fein Irish Parliament)가 1918년에 더블린에서 결성되었고, 1919년부터 본격화된 게릴라전은 영국·아일랜드간 협약(Anglo-Irish Treaty)이 체결된 1921년까지 지속된다(Duffy 2).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독립을 쟁취해 내려는 동족의 노력이 이처럼 고조에 달했을 때 쓰여진 『율리시즈』에서 독립 이후의 탈식민 주체(a postcolonial subject)로 여성적 성향의 유태인 리어폴드 블룸(Leopold Bloom)을 상징하고(Duffy 111), 그 전제 조건으로서 식민지인에게 각인된 하위주체(subaltern) 의식의 극복을 동족의 선결 과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하위주체 의식 중에서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행위가 동족 상호간에,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에게 답습되면서 오히려 제국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정신적 마비”상태의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주지하듯이 아일랜드가 처해 있던 식민지적 현실은 여성의 소외를 가중시키는 억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여성의 비참한 현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의 열기로 덮여지면서 은폐되는 까닭이다. 프란츠 파농(Franz Fanon) 역시 그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에서 한 국가의 권력이 군사화되고 집중화될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재부상하게 만든다는 가족과 국가구조 사이의 긴밀한 착종 관계를 피력한 바 있다(1967: 141-2). 더구나 영국이 덧씌운 여성적인 민족¹⁾이라는 자국의 이미지를 식민화의 원인으로 파악해 온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낸디(Ashis Nandy)의 지적처럼 “정상적인 성의 형태”로 고착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성”을 불식시키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남성성”(Cairns and Richards 49에서 재인용)을 배양하는 것만이 식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각인되어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의 여성은 제국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는 자국 남성들로부터도 소외와 착취를 당하는 이중고의 현실에 처하게 된다. 식민지적 현실은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강조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해방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보다 중요한’ 명제에 밀려난 채 미래의 천국에서나 거론될 수 있는 안전이었던 것이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페미니즘 운동의 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번째는 남녀 양성의 동등이라는 것이 양성의 유사성을 일컫는 것이며, 이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권력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남성 중심의 권력 체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양극의 가정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른다(1986: 193-5). 이 세 번째 단계의 이분법의 해체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존립 근거를 흔들어놓는 것이며, 조이스

1) 그 대표적인 예로 르낭(Ernest Renan)의 견해를 전유했던 아놀드(Matthew Arnold)를 들 수 있다. 민족차별적인 견해를 지녔던 르낭은 켈트문화의 뛰어난 점을 논한 「켈트민족의 시」(*Poetry of Celtic Races*, 1854)라는 글에서 아일랜드인을 “소심하고 내성적인 민족”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논리는 아놀드에 의해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전유되는데, 이는 르낭이 켈트 민족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아놀드는 “켈트 문화가 영국 문화에 종속될 것”을 주장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Robert Young 68-72 참조).

가 탈식민 주체(a postcolonial subject)로서 내세운 “새로운 여성형의 남성”(a new womanly man)인 블룸은 바로 이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제국과 식민지 등 지배와 종속의 인간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위계적 이분법은 ‘난폭한 서열’이지 결코 ‘평화로운 공존’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블룸을 유태인으로 설정한 사실에서도 인종간의 우열 논리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제국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의식이 엿보인다. 주지하듯이 19세기는 “인종 및 성의 퇴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거라는 ‘상상’의 개념이 과학의 힘을 빌어 ‘진실의 장’으로 편입되면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해 주는 제국의 논리로 전환된 시기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흑인들은 성적 일탈자들(gender deviants)이며,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후진성은 곧 역사, 이성 등에 대한 그들의 ‘여성적인’ 결핍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당시 식민지를 대변하는 아프리카의 흑인을 여성적인 인종으로 서구 유럽인을 남성적인 인종으로 갈라놓는 이러한 이분법적 위계 질서는 무능한 여성에 대한 유능한 남성의 지배 또는 ‘보살핌’을 제도화한 서구의 가부장제를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McClintock 43, 44, 55).

이러한 인종 및 성적 퇴보 사이의 ‘가정된’ 연관성은 아일랜드인과 유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테면 아일랜드인과 유태인이 그들과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자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흑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일탈자의 범주에 속한다는(McClintock 43), 다시 말해 이들이 “백인 남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타락한 여성적인 민족들”(McClintock 5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피부색을 지닌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 통치 방식 역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유색 인종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형이상학적 차별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부각시키게 된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섹슈얼리티의 수동성에 기인한 여성적인 병으로 진단한 히스테리증을 아일랜드인과 연관시킨 테니스(Alfred Lord Tennyson)의 “켈트인의 그 맹목적인 히스테리아”(“the blind hysterics of the Celt”)(“In Memoriam”)라는 표현이나 앞서 열등한 민족의 속성으로 거론했던 “성적 일탈자”를 연상시키는 스펜서의 “방종한 민족”(O’Brian 55, 69) 운운, 그리고 아일랜드인을 당시 뒤쳐진 인종으로 상정되었던 흑인에 비유한 로렌스(D. H. Lawrence)(*Lady Chatterley’s Lover*, 25) 등 아일랜드인을 흑인 및 여성과 동일선 상에 위치시키려는 담론이

당시 지배적인 추세였다.

넨디는 영국에 대한 인도의 독립 운동에 있어서 남성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 특히 모성적 속성이 제국의 가치 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자기 비판적인 남성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간디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Nandy 39, 44). 그러나, 「사이클롭스」(“Cyclops”)장의 시민처럼 아일랜드의 대다수의 민족주의자들은 헐링(hurling) 등의 ‘남성적’이고 과격한 아일랜드의 고유한 운동을 격려하는 게일 운동 연합(Gaelic Athletic Association) 등의 단체를 만들어 아일랜드의 호전적인 남성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역시 호전적인 영국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이들 민족주의자들은 제국에 의해 “설정된 규칙에 따라 그들의 지배자와 같아짐으로써 그들의 ‘남성다움’을 회복하려 한 것”(Nandy 11)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디 이전의 인도의 민족주의자들 역시 “상실된 인도인의 남성다움을 되찾는 것”이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넨디는 이러한 사고에 비추어볼 때 “식민주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때의 식민주의는 “정당한 정치 투쟁의 과정에서 피지배자들의 무력과 패배가 가져온 결과”로서, 제국이 식민지를 착취하는 것은 “우월한 형태의 정치·경제적인 조직”의 “우발적이며 애석한 산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Nandy 9-10). 이어서 넨디는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폭력적인 침략자를 굴복시키며 남성적인 제국의 여성적인 식민지 지배라는 도식을 전복시킨 간디의 진정한 힘은 그의 양성성, 특히 모성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동일하지만, 이 이분법을 초월하는 능력은 신과 성인의 자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양자보다 더 우수하다”(Nandy 53)는 것이다. 그의 견해를 따른다면 영국의 남성성에 대항하기 위해 아일랜드도 남성적인 호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국의 논리에 함몰된 단견에 불과한 것이며, “새로운 여성형의 남성”인 불륨이 보여주는 양성성, 그리고 그의 모성적 속성이야말로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식민지인의 적절한 성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식수(Helene Cixous)의 표현처럼 “각각의 위치가 위계질서로 분석되는” 그리고 “언제나 ‘여성적인’ 측면은 부정적이고 무력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부장적인 이분법적 사고”(Moi 40에서 재인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다. 크리스테바(Kristeva)의 표현을 빌면, 성(gender)의 개념

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서 “성 정체성의 그 분명한 불안정함과 모호함을 자신과 일치하는 본질로 난폭하게 고착시킨 것”(Eagleton 23에서 재인용)에 불과하다. 결국, 성 정체성의 경직된 경계를 넘나들면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성·인종의 확고부동한 코드를 흔들어놓는 블룸은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고정된 개념들에 일격을 가해서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조명하는 소임을 맡는 인물이다.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 식민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제국의 성 정치(sexual politics)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제 식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동족에게 적합한 대안적인 성 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카이버드(Declan Kiberd)의 지적처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는 점령자가 물러났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의 작가가 문화적 저항을 위한 텍스트를 구상하는 순간에 시작되는”(Kiberd 6) 것이라면, 조이스는 조국이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와중에 쓰여진 『율리시즈』를 통해 독립 이후의 탈식민 주체로서 블룸을 상징하고 있는 것(Duffy 111)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민족의 해방은 기본적으로 자아의 해방이며(Carns and Richards 80), 자아의 진정한 해방은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인간 관계를 고착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모든 구조물들의 허구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진지한 노력에서 올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여성적 남성”(a womanly man)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대변하는 블룸을 통해 식민지적 상황의 실상을 이끌어내고, 이들의 자화상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고착시키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그 극복의 가능성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반반(half and half)의 조화

『율리시즈』의 시점을 형성하는 1916년 6월 16일은 조이스가 더블린의 한 홍등가에서 헌터(Alfred H. Hunter)라는 이름의 유대인을 만나 그에게 도움을 받은 날임과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인 노라(Nora Barnacle)를 만나 사랑에 빠진 날이기도 하다(Schwarz 14). 따라서 『율리시즈』에 함축된 유대인과 여성, 달리 표현해서 민족과 성이 지닌 의미는 그만큼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가 당시 가장 주변부적인 인물이었던 이 유대인과 여성을 집목시켜 유대계 혈통

의 '여성적' 남성인 불륨을 새로운 현대판 영웅의 표본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율리시즈』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반여성적 시각이 늘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병행하는 것 역시 이 두 소외 계층에게 가해지는 동일한 정도의 억압 양상을 반영한다. 이처럼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은폐하려는 제국의 성적·인종적 위계 논리는 식민지인들 자신에게 각인되면서 그들 사이에도 지배와 종속의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네스터」(“Nestor”) 장의 디지(Deasy) 교장은 그 좋은 예이다.

한 여인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었지. 행실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의 여인, 메넬라오스의 도망간 아내, 헬렌을 위하여, 10년을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에서 전쟁을 했던 거야. 한 사람의 부정한 아내가 여기 우리들의 해안으로 낚선 사람들을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거네, 맥머로우의 아내와 브레프니의 왕자인, 그녀의 정부 오르크 말이야. 파넬을 실각시킨 것도 역시 한 사람의 여인이었지.²⁾

우리는 “모두 왕들의 자손”, 곧 영국과 하나임을 주장하는 ‘합병 주의자’(unionist)인 디지 교장은 아일랜드를 지배하려고 건너 왔던 스코틀랜드인의 후손으로서 오렌지당을 지지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인 “웨일즈의 황태자, 엘버트 에드워드”의 사진을 교장실에 걸어 둔 친영적 성향의 인물이다. 자신 역시 아일랜드의 현 식민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의 여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반민족주의적 태도를 은폐하고자 한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모든 불운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의 반여성적 사고는 자신도 모르게 역사적 사실을 혼동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왜냐하면 12세기에 더보길라(Dervorgilla)를 납치했던 라인스터(Leinster)의 왕 맥머러(Dermot MacMurrough)가 그녀의 남편인 브레프니(Breffny) 대공 오르크(O'Rourke)에 의해 추방되었던 사실(史實)(O'Brien 38-39)이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바뀌 표현된 것은 여성비하에만 급급한 그의 심리상태의 반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반여성적 사고와 반유대

2) James Joyce, *Ulysses*. Hans Walter Gabler et al eds.(Harmondsworth: Penguin, 1993), 2. 390-96. 앞으로의 모든 텍스트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U란 약자와 함께 장과 줄 수만 괄호 안에 기입하겠음.

주의의 밀착된 관계는 디지 교장의 다음의 발언에서 분명해진다.

지금 영국은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쥐여 있어. 유력한 지위에 있어서는 모두가 . . . 그리고 그건 한 나라가 부패하고 있다는 징후란 말일세. 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들은 그 나라 국민의 원동력을 다 먹어치워 버린단 말야. (U 2. 346-49)

이처럼 디지 교장은 “나의 조국이 독일계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U 1. 666-67)는 영국인 헤인즈의 반유대주의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추종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 역시 “돈이 곧 힘”이라는 철저한 물질주의의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상인의 파괴 작업”(U 2. 350)을 운운하며 그들의 물질주의적 속성이 현 상황의 불운을 초래한 주요 원인임을 역설한다. 이에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는 “상인이란 유대인이든 이교도이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U 2. 359-60)이라는 상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며 디지 교장의 편협성을 지적하지만, 디지 교장은 “그들은 [유대인들] 빛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 속에서 어둠을 볼 수 있다”(U 2. 361-62)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로 이들이 “지구상의 방랑자”(U 2. 362)로 떠돌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반유대주의도 정당화하고자 한다. 유대인을 추상적인 “어둠”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부당한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그의 발언은 빛·어둠을 구분하여 어둠을 죄와 연결하고 죄에 빠진 식민지의 원주민을 빛으로 인도한다는 제국주의의 명분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19세기는 인종과 성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된 사실들이 과학의 힘을 빌어 ‘진실의 장’으로 편입되면서 제국의 지배 논리를 받쳐주는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시기였다. 이때 제국과 식민지를 가르는 피부색의 차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기정 사실화한 서구의 가부장적 구도와 맞물리면서, ‘여성적’이라고 상정된 흑인에 대한 ‘남성적인’ 백인의 지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피부색의 생물학적인 ‘어둠’을 은연중에 본질적인 ‘원죄’와 연결시키며 자신들의 착취 행위를 식민지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신의 사업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디지 교장은 자신과 동일한 백인인 블룸에게 ‘여성적인 인종’으로 분류되었던 흑

인과 동일한 표현을 빌어 그를 폄하하고자 하는데, 이는 맥클린톡도 지적했듯이 당시 제국들이 유대인과 아일랜드인을 “백인 남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장 타락한 여성적인 민족들”(McClintock 51)로 간주하며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남성·여성, 백인·흑인, 그리고 빛·어둠의 이러한 위계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사이드(Said)의 지적처럼 “식민화의 첫 번째 원칙”으로서 제국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서열적 구분”(1990: 82)을 통해 그들의 식민지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지배자의 삶을 모방하여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피지배자의 세계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디지 교장의 경우가 그러하다. 유대인을 어둠으로 배척했던 그를 빛과 연결하는 다음의 인용문은 제국의 이분법적 사고에 물든 그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바둑판 같은 나뭇잎 사이로 태양은 반짝이는 은박 같은 빛, 춤추는 동전을,
그의 현명한 어깨 위로 던졌다. (U 2. 448-49)

위의 예문처럼 디지 교장의 묘사에는 특히 빛의 이미지가 강조되는데, “찬란한 햇빛이 그의 잘못 염색된 벌꿀빛 머리카락을 하얗게 표백했다”(U 2.197-98)거나, 그리고 “햇빛이 환히 비치는 곳을 지나자 그 눈이 파랗게 생기를 띤다”(U 2.352-53)거나, 또는 “눈을 크게 뜨고 햇빛을 가로질러”(U 2.352-53) 가는 모습 등의 표현을 그 몇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위 예문의 “반짝이는 은박 같은 빛” 역시 그를 빛과 연결된 존재로 묘사하면서 그의 제국주의적 사고의 단면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이는 물리를 “정복하는 영웅”(conquering hero)인 블레이지스 보일런(Blaze Boylan)에 대한 묘사, 이를테면 “햇살 속의 [그의] 밀짚모자”(straw hat in sunlight)(U 8.1168) 또는 “그의 눈의 빛”(light in his eyes)(U 8.1175)과 같은 표현도 그를 빛과 연결된 존재인 “정복자,” 즉 제국주의자로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하지만 조이스는 스티븐과 블룸이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 검은 색의 옷을 내밀하게 작품 내로 끌어들여 이와 대비시키면서 밝음이 내포하는 우월 의식의 허구에 도전하고 이의 해체를 시도한다. 그 날 치러진 경마에서 예상을 뒤

였고 우승한 “다크 호스”(Dark Horse)(U 12. 1557)는 “그 자신 [블룸]이 바로 경칠 다크 호스란 말일세”(U 12. 1558)라는 조(Joe)의 말과 중첩되면서 고정된 담론을 파괴하는, 즉 ‘예상을 뒤엎는’ 블룸의 ‘이질적’ 작업을 거듭 예고한다. 아직 어머니의 상중(喪中)인 연유로, 혹은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종일 검은 색의 옷을 입고 더블린 시내를 돌아다니는 스티븐과 블룸은 “아베로에스(Averroes)나 모지즈 마이모니데스”(Moses Maimonides)³⁾처럼 “용모나 행동에 있어서 어두운 사람들”(U 2. 158-59)과 연결되면서, “그들의 조롱하고 있는 거울 속에 세계의 몽매한 영혼을 반사시키면서, 밝음이 깨달을 수 없었던 어둠을 밝음 속에 비추는”(U 2. 159-60) 소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블룸의 이러한 소임은 바니 키어넌(Barney Kiernan) 주점에 모인 아일랜드의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 이를테면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자, 제국의 공모자(Castle Gentry),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붙어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자들(sponger)과 맞서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밝음이 깨달을 수 없었던 어둠을 밝음 속에 비추는” 그의 ‘이질적’ 작업을 통해 그들이 간혀 있는 ‘동질적’이고 고정된 의식의 틀이 그 허약한 실체를 드러내고 흔들리게 된다.

바니 키어넌 주점은 아일랜드인의 의식의 단면을 제공하는 일종의 축소판 역할을 한다. 먼저 주점을 들어설 때 그들이 암호처럼 주고받는 “통과 친구들”(Pass, friends)(U 12. 131)이란 말은 타자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판가르기에 입각한 그들의 철저한 배타성을 함축한다. 또한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누구보다도 영국을 증오하는, 그러나 지금은 하릴없이 “술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U 12. 120-21) 시민(the Citizen)이 사실은 “쫓겨난 농부의 땅을 차지한”(U 12. 1315-16) 부재 지주라는 사실에서 이들의 일그러진 이중성이 단

3) 아베로에스(1126-1198)는 스페인계 아랍인 철학자이며 물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으로 유명하며, 이는 상당부분에 걸친 중세 기독교 학문의 기반을 마련.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회교도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창조주 하나님을 강조), 회교 세계에서 그는 이단으로 의심을 받음. 그를 따르는 기독교 및 유대교 추종자들은 똑같이 이단자로 인정됨. 모지즈 마이모니데스(1135-1204) 유대교의 랍비, 탈무드의 학자이며 철학자. 아베로에스처럼 그는 중세 기독교 사교, 특히 아퀴나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그는 “서구의 빛”으로 불림. 마이모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사교와 정통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계시된 진실을 조화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함(Gifford 1974: 22).

적으로 드러난다. 이외에도 화자(話者)에 의해 오렌지 당원으로 밝혀진 크로프턴(Crofton)(U 12. 1634), 한 쪽 구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밥 도런(Bob Doran), 불어 몇 마디로 자신을 포장하며 여전히 술 얻어먹는 데 여념이 없는 「두 건달」(“Two Gallants”)의 “저 기생충 같은”(U 18. 426) 레너헌(Lenehan), 그리고 제국의 앞잡이로 ‘더블린 성’에서 일하는 커닝햄(Cunningham)과 파우어(Power) 등 주점에 모여든 면면은 아일랜드인의 마비된 의식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민족주의자인 시민은 자국의 식민화의 원인을 ‘여성적’인 유약함으로 파악하려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성적인 힘과 위용”(manly strength and prowess)(U 12. 911)을 지녔던 고대 아일랜드의 전통 운동을 부활시켜 민족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남성적인’ 호전성을 지닌 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문화는 무조건 옳고 좋은 것이며 ‘그들’의 문화는 모두 틀리고 나쁜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시민은 영국의 문명은 “모조리 우리한테서 녀석들이 훔쳐간 것”(U 12. 1200)이며 “매독 문명”(syphilisation)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또한 시민은 영국인들이 주로 하는 테니스를 격하시키고 “남성적인 힘과 위용”을 지녔던 고대 아일랜드의 전통 운동의 우수성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륨은 과격한 운동이 몸에 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테니스가 “동작의 민첩함과 눈의 훈련”(U 12. 945-46)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각각의 운동에 따른 서로 다른 유익함을 주장한다. 시민이 영국 해군의 잔인한 형벌과 그 폭력성을 규탄하자 불륨은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유사한 군대의 규율을 갖는다는 군사 훈련의 보편적 성격을 내세우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하고 불륨이 말한다. “훈련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말하자면 만일 힘과 힘이 대결한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대결할 것이다,”하고 ‘시민’이 말한다. (U 12. 1360-64)

“힘에는 힘으로”라는 제국의 힘의 논리를 주창하는 시민은 “식민주의는 피

지배자들로 하여금 지배자들이 설정해놓은 심리적 한계 내에서 그들과 투쟁하도록 유인하는 문화를 만든다”(Nandy 3)는 낸디의 분석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그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제국 건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낸 남성적 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아일랜드의 전형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민은 “지배자가 설정한 심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성적인’ 힘을 강조하는 제국주의 논리에 갇혀있는데, 이에 반해 블룸은 ‘힘의 논리’만으로는 ‘힘의 주체’만 바뀐 채 인간사의 질곡은 되풀이될 뿐이라는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민은 계속해서 프랑스인도 “한 때의 댄스 교사놈들”(U 12. 1385)로 비하하며 켈트 민족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앵글로 색슨 민족의 뛰어난 능력이 켈트 민족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영국이 주장하는 민족간의 우열 논리를 반복하는 처사이다. 시민이 보여주는 편협한 민족주의는 자국에 대한 사랑이 곧 타국에 대한 증오를 의미하는 국수주의와 동일한 것이며 전도된 애국심의 발현일 뿐이다. 이에 반해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 켈트시즘과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타민족 그리고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민족의 민족적·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함은 영국의 민족주의의 행태와 동일한 것(Cheng 49)에 불과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이스는 그의 「아일랜드, 성자와 성인들의 섬」(“Ireland, the Island of Saints and Sages”)이라는 글에서 민족을 “가장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대한 천”에 비유하며, “이러한 천에서 순수하게 남아 있을 한 가닥의 실을 찾는 것은 쓸모 없는 일”⁴⁾이라면서 민족간 혼합의 불가피함을 역설한 바 있다. 그가 퇴영적 복고주의를 표방했던 조국의 문예부흥운동에 동조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블룸이 「써시」(“Circe”)의 환각의 세계에서 ‘성적·인종적 혼합’을 구현할 “미래의 새로운 아일랜드의 블룸 성지”(U 15. 1544-45)를 건설한 것도 이 위계적 이분법을 지양하고 성·인종간의 조화를 이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픈 조이스 자신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율리시즈』가 오딧세이 신화를 근간으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율리시즈』는 자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타민족에 용감하게 대항하며 희생도 불

4) James Joyce,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London: Faber & Faber, 1975), 165. 앞으로의 모든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CW란 약자와 함께 괄호 안에 쪽수만 기입하겠음.

사하는 남성 영웅들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을 끊임없는 분쟁의 와중으로 내몰고 있는 민족과 성 사이의 경직된 구분을 해체시키려는 작품이다. 『율리시즈』의 주인공으로 ‘여성적’ 성향의 유태인을 내세운 것에서도 타민족을 자민족과 구분하여 배척하고 소외시키려는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의 단견에 대한 조이스의 신랄한 비판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들에게 각인된 이분법 논리는 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와 사랑을 주장하는 블룸과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들 주점에 모인 자들은 즉시 이 블룸의 ‘차이’에 성적·인종적 이분법을 적용하며 그를 배척해야 할 타자로 밀어내기 시작한다. 그들은 블룸의 유태인 혈통을 그의 ‘여성적 성향’과 접목시켜 ‘이방인’으로 분류하고 주변부로 소외시키는 수순을 밟아 나간다. 블룸이 남편의 기이한 행동으로 고통받는 브린(Breen) 부인을 동정하자 시민이 즉각 “반반(half and half)의 얼치기 녀석”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그를 빗대어 빈정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반의 얼치기”(U 12.1052-53) 또는 “생선도 고기도 아닌 녀석”(U 12.1156-57), 달리 말하면 ‘남성다움’에 대한 그들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된 블룸은 그 곳에 모인 다양한 인간 유형들, 이를테면 민족주의자, 오렌지 당원 그리고 제국의 꼬나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공동의 공격 대상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과 블룸이 보여주는 이 ‘차이’에 여성의 ‘원죄’를 덧씌우며 그들의 굴욕감, 분노 등을 해소할 ‘희생양’으로 그를 몰아가는데, 이때 그들간의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망각되고 결국은 강해지는 진기한 상황도 연출된다. 아일랜드의 암울한 식민지적 현실에서 ‘여성’ 또는 ‘여성적’이라는 사실은 그들 사이에 정치적 이견(異見)도 무마시킬 만큼 확실한 비난거리였던 것이다. 결국 시민 역시 민족의 재난을 “한 사람의 여성” 탓으로 돌렸던 디지 교장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반복하면서 여성적 성향의 블룸이 그 재난과 무관할 수 없다는 암시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__ “그놈의 이방인들 같으니라구,”하고 ‘시민’이 말한다. . . . “그 간부(姦婦)와 그녀의 정부(情夫)가 색슨 강도놈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지 뭐야.” (U 12. 1157-58)

__ “한 사람의 부정한 아내,”하고 ‘시민’이 말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란 말이야.” (U 12. 1163-64)

이처럼 블룸은 “이방인”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여성과 동일하게 소외된다. 이 소외 계층에 대한 박해에는 ‘이질적인’ 집단도 ‘동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집에 더 이상 이방인들은 원치 않는다”(U 12. 1150-51)는 민족주의자 시민의 발언이 “우린 그런 녀석을 원치 않는다”(U 12. 1634)는 오렌지 당원 크로프턴에게서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듭되는 양상으로 재현된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두 집단 모두 유대인 블룸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갈 때에도 공격의 초점은 다름 아닌 그의 ‘여성적’ 성향이다. 언제나 “여성적인 측면은 부정적이고 무력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가장장적인 이분법적 사고”(Moi 104에서 재인용)라는 식수의 지적에 충실하게, 이제 그들은 블룸을 사회에서 배격할 목적으로 그의 ‘부정적인’ 여성적 성향을 부각시키고 ‘날조’하는 상황을 전개해 간다. 그들은 블룸이 “매춘부가 맨스로 정신이 혼미하듯 한 달에 한번씩 일어나는 두통 때문에 호텔에 누워있다”(U 12. 1659-60)며 그를 “그 뒤섞인 중성들 가운데 한 놈”(One of those mixed middlings)(U 12. 1658-59)으로 분류해 버린다. 또한 “한 강통의 니부스 푸드를 사는”(U 12. 1651-52) 따위의 하찮은 ‘여자의 일’이나 하는 블룸에 대해 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걸 사내라고 부르나”(U 12. 1654)며 그의 남성성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른다.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블룸은 이처럼 그의 ‘여성적’ 속성이 ‘원죄’로 치부되면서 현 식민지적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디지 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반여성적 시각은 어김없이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수반한다. 이런 현상은 블룸의 여성적 성향을 빌미로 그를 일제히 ‘이방인’으로 매도하면서 그의 ‘민족적 차이’를 함께 들먹거리는 그들의 일률적인 태도에서 재차 확인된다. 블룸은 자신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민족의 정의를 묻는 그들에게 “민족이란 같은 지역 안에 살고있는 같은 백성”(U 12. 1422-23)이라고 답변하면서 곧 이어서 “혹은 다른 지역 안에 살고 있어도”(U 12. 1428)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렇듯 유동적인 민족의 정의에 따라 블룸은 자신 역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U 12. 1431) 아일랜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블룸을 통해 조이스는 영국의 민족적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면서 타민족에게 제국과 동일한 불의를 자행하는 동족의 어리

석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이드(Said)는 그의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에서 제국주의를 “어떤 지역과 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포함한 이념적 형성”(Said 9)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블룸의 이러한 광의의 민족 개념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민족간 우열 논리와 이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를 지양하고 제국주의의 정신적 토대인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월해 보다 보편적이고 평화적인 세계주의를 지향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블룸은 유대 민족이 겪는 박해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직된 민족주의, 달리 표현하면 국수주의의 왜곡된 애국심에 갇혀 있는 그들의 시야를 타민족의 불행으로 끌어 올려 인간사에서 자행되는 보편적인 불의(不義)의 상황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나도 역시 한 종족에 속해요.”하고 블룸이 말한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도 역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시각에도 . . . 노예나 가축들처럼 모로코에서 경매로 팔리고 있던 말이요.” (U 12. 1467-72)

“유대인이라면 질색”이라는 화자의 근거 없는 민족적 편견이 대변하듯 블룸은 유대인이 겪는 불의의 부당함과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호소하지만 이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빈정거리듯 운운하는 시민의 냉소적인 반응만 유발한다. 이는 켈트 민족의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도 동일한 처지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소외시키고 억압하려는 이들의 이중적 사고를 드러내는 소치로서, 그들의 이러한 모순은 블룸에게 “크롬웰식 악담”(U 12. 1785)을 퍼붓는 시민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크롬웰은 “아일랜드인들이 저주할 때 크롬웰과 사탄의 이름을 섞어서 쓰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CW 168)는 조이스의 말처럼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잔인한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처지의 유대인에 대해서 시민이 퍼붓는 “크롬웰식 악담”은 제국을 비난하면서도 닮아가는 한 편협한 민족주의자의 한계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다시 한번 블룸은 제국주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 속의 조그만 티끌은 볼 수 있어도 그들 자신의 눈 속의 들보는 볼 수 없다”(U 12. 1237-38)는 성경 구

절을 빗대어 일깨우고자 한다. 또한 그는 자민족만을 강조할 때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것 [박해]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민족간의 증오감만 영속(永續)시킬”(U 12. 1417-18)뿐이라면서 이를 초극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하고 그는 말한다. “힘이든, 증오든, 역사든, 그따위 모든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산다는 건 그게 아니야, 모욕 그리고 증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의 정반대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뭐야?”하고 엘프가 말했다.

“사랑이야,”하고 블룸이 말했다. “내가 뜻하는 것은 증오의 반대 얘기지. . . .” (U 12. 1481-85)

“증오”의 굴레에 간혀 있는 시민은 스스로 “힘에는 힘으로”라는 제국이 “설정한 규칙,” 즉 피지배자가 남성적 힘의 논리로 그 지배자와 맞설 때 야기될 수 있는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는 셈이다. 시민의 “증오”는 곧 ‘남성적인 힘’을 주창하는 제국주의의 논리만으로는 인간은 영원히 그 “증오”로 점철된 질곡과 압제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듯 ‘힘’의 논리에 좌우될 때 역사는 ‘힘’의 주체만 바뀌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블룸이 “증오”에 찬 시민에게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증오”의 정반대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시민이 분노하는 영국의 잔혹한 식민 지배의 실상이 상당 부문 조이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분명하다. 영국을 성토하는 시민의 견해에 “완전한 사실이야”(U 12. 1376)라며 수긍하는 블룸은 곧 영국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 시각의 반영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그의 여러 글을 통해서 영국의 탄압과 이에 따른 동족의 고통을 노예의 질곡에 비유하며(CW 168) 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그러나 그가 시민과 다른 점은 시민의 “증오”에 찬 “힘에는 힘으로”라는 ‘남성적인’ 대항 방식만으로는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설령 영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식민 지배의 부산물인 ‘힘’에 의한 지배·종속의 수직적 인간 관계, 즉 제국주의적 사고가 민족 주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한 지배자·피지배자의 인간 관계의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

의 해방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⁵⁾

‘남성적인 힘’을 강조하는 제국 논리에 대한 조이스의 거부는 『율리시즈』와 동명(同名)의 시를 쓴 테니슨(Tennyson)이 작품 내 곳곳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일례로, 테니슨 경(Lord Tennyson)이라는 이름은 영국인의 테니스를 암시하듯 테니슨 잔디(Lawn Tennyson)(U 3.492)로 변형되고, 이어서 그는 타문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옥스퍼드 출신의 획일주의자임을 암시하듯 옥스퍼드의 잔디를 ‘차이’ 없이 깎아버리는 “커머거리 정원사”로 바뀌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커머거리 정원사”가 “매튜 아놀드의 얼굴 모습”(U 1.173)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당시 영국의 제국 논리를 지지했던 대표적 문인인 테니슨과 아놀드는 이렇게 서로 겹쳐지며 조이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 주지하듯이, 테니슨의 『율리시즈』는 “늙은 아내와 더불어 야만종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한탄하며 그 “늙은 아내”(aged wife)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려는 ‘율리시즈’의 ‘남성적 위용’을 찬양한 제국 지향적인 시의 전형이다. 이렇듯 ‘율리시즈’는 자신을 “늙은 아내”와 “야만 종족,” 즉 성·인종의 서열적 구분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견지하는 인물일 뿐더러, 충실한 아들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 영웅적인 모험을 찾아 떠날 것을 결심하는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조이스는 ‘부정한 아내’ 곁으로 돌아가는 ‘여성적인’ 불륨을 이에 대비시켜 ‘남성적 위용’을 표방하는 영국의 영웅주의와 충돌시킨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동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점 역시 『오디세이』(Odyssey)의 영웅주의 및 이를 추종하는 영국 빅토리아조의 제국주의를 함께 배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Odysseus)는 이터커(Ithaca)로 돌아온 후 페넬로페(Penelope)와 결혼을 원했던 108명의 구혼자들을 ‘중오’와 ‘폭력’으로 물리치며 ‘아버지의 법’을 수호했던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영웅이다. 하지만 조이스는 아내의 부정에 대해 “자제”와 “평정”(U 17.2195)을

5) 조이스의 폭력을 자제한 평화적인 정치 노선은 “불륨이 그리피스에게 신페인당(Sinn Fein)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U 12.1623-25)는 등 불륨과 신페인당의 창시자인 그리피스와의 모종의 연관성이 텍스트 내 여러 곳에서 암시되는 점(U 18.383-88, 18.1227-31)에서도 추론된다. 평화적인 의회투쟁 방식을 사용한 파넬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조이스로 미루어볼 때, 그는 불륨의 치밀한 경제 관념과 평화적인 태도를 통해 그리피스가 표방한 경제 우선의 비폭력적인 독립투쟁을 “더 효율적인”(Selected Letters 125)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Manganiello 139).

보이는 『울리시즈』의 블룸을 내세워 오디세우스가 표방하는 ‘중요’와 ‘폭력’의 영웅주의를 아이러니를 가지고 바라본다. 블룸은 설령 보복을 위한 것일지라도 “암살”이나 “결투에 의한 투쟁”은 악행이며, “두 개의 악행을 합하더라도 한 개의 선을 낳을 수는 없다”(U 17. 2201-2)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블룸은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남성이 아닌’(no man) 인물이다. 그래서 사이클롭스를 속이기 위해 오디세우스가 사용했던 노우맨(Noman)이라는 이름이 블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조이스의 『오디세이』 비유가 아이러니를 내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Black 67).

「써시」장의 환각의 세계에서 블룸은 여성으로 성(gender) 변화를 한다. 이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 변화는 (남성)주인의 지배를 받는 “명예를 멘 물건”(a thing under the yoke)으로의 변화도 수반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곧 지배자이며, 그와 반대로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 구도의 부조리함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성만 바뀐 벨라(Bella)·벨로(Bello)가 블룸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양상은 가부장제의 남성 권력의 근거가 단지 남성·여성의 추상적인 이분법 개념에 근거한 취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벨 로

... 네가 갈망하던 대로 됐지 뭐야. 이제부터 너는 아내가 아닐 뿐더러 정
말로 내 소유물이 되는 거야. 명예를 멘 물건이 되지. 자 벨로 이 드레스를.
남자의 옷은 벗어야 해, 알겠나 루비 코헨? (U 15. 2963-67)

넌디의 지적처럼, “정상적인 성의 형태”로 고착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남성성”과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성”이라는 성에 대한 허구적인 도식은 남성임이 부인(unmanned)되는 순간 “명예를 멘 물건”으로 바뀌는 블룸에게서 극명하게 재현된다. 여성의 ‘원죄’를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벨라(벨로)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판관의 역할도 맡는다. 전도된 성 역할에서 보여지는 위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그 우스꽝스러움으로 가부장적·채국적 담론의 부조리를 한껏 극대화시키며 그 허구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남성으로 변한 벨라(벨로)에 의해 입어야 할 옷까지 명령받는 블룸이 루비 코헨(Ruby Cohen)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서도 가부장제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벨로

...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루비 반지를 끼워준다) 자 이제 됐어! 이 반지를
 껌으로써 너는 내 것이 되는 거야. ... (U 15. 3067-68)

이렇듯 여성은 루비(결혼) 반지와 함께 남성의 소유물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남녀의 결혼 관계로 상징되어온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바꾸어 본다면, 남성임이 부인된(unmanned) 여성적 민족인 아일랜드가 남성적 민족임을 표방한 영국에 의해 “명예를 멘 물건”으로 취급되는 상황으로 치환될 수 있다. 벨라(벨로)는 “주인에게 훈련받은”(U 15. 3088) 불륜을 착취하고 노예 시장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처럼 취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시민이 격분했던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착취 행위였던 것이다.

남성이 지배자로 고착되는 성 역할의 부조리함은 기표로서의 여성이 가부장적 담론의 허구적 구조물에 불과할 뿐임을 말해준다. 앞서 지적했듯이 카이버드는 “아일랜드’란 ‘개념’을 영국 역사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국 지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Cairns and Richards 9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둘을 결합하면 아일랜드의 여성적 민족 운운은 식민 지배라는 제국의 필요에 따라 날조된 허구라는 결론이 나온다. 커모드(Kermode)의 지적처럼, “허구는 그것의 허구적임이 의식적으로 주장되지 않으면 신화로 변질되어버릴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것”(Cairns and Richards 11에서 재인용)이다. 그렇다면 남성적 호전성을 키워 민족의 독립을 도모하려는 제국의 남성·여성의 위계적 허구를 신화로 내면화한 식민지인의 단견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똑같이 고통받는 여성이나 유대인에게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블룸은 남성이 지닌 여성적 속성이 결코 유약함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그는 간디의 경우처럼 진정한 용기와 행동은 호전성에서 벗어나서 여성성, 특히 모성과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Nandy 54)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형 남성의 좋은 본보기”(U 15. 1798-99)인 블룸이 “어머니가 되길 원하며”(U 15. 1817) 여덟 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은 여성, 특히 모성과 남성의 조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 장면은 여성

성을 유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적인 것을 식민화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무조건 배척하려는 단선적인 사고의 시정을 촉구한다. 남성 속에 내재하는 이러한 여성적 속성이야말로 제국의 근간인 이분법을 위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힘’이며, 결국 “정복하는 영웅”(conquering hero)(U 11. 340) 보일런을 “아웃사이더”(U 18. 425)에 불과한 드로우어웨이(Throwaway) 호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아웃사이더’인 블룸을 “정복당하지 않는 영웅”(U 11. 342)으로 만들어주는 식민지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거듭 강조했듯이, 인간의 의식에 각인된 위계적 이분법은 식민 지배의 불의를 은폐하고 이를 존속시키려는 제국의 기도를 도와주면서 그 토대로 작용해왔다. 그렇다면, 이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여성형 남성의 좋은 본보기”인 유대인 블룸이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비난에 오히려 그들이 식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녀석은 유대교인가 혹은 유대교에서 쫓겨난 이방인인가 혹은 로마 카톨릭 교도인가 혹은 신교도인가 도대체 그 녀석 뭘 하는 사람이지? 하고 네드가 말한다. 혹은 어떤 인간이야? 악의가 있어 하는 말은 아니지만, 크로프턴.” (U 15. 3067-68)

삶은 곧 사랑이라는 블룸의 인생 철학에 기대어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자못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이 종교인들이 ‘소리 높여’ 내세우는 모든 종교의 분명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의 질곡의 역사로 점철되어온 인간의 현실을 돌이켜 본다면, 오히려 특정 종교에 귀속되지 않은 “어떤 인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블룸의 ‘소리 없는’ 사랑의 실천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랑을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친구 디그넬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유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난산을 겪고 있는 퓨어포이 부인(Mrs Purefoy)을 진정으로 동정한다. 갈매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장님 소년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그는 만취한 스티븐을 사창가까지 따라가서 따뜻한 ‘모성’으로 보살피며 따뜻한 한 잔의 코코아를 대접하기도 한다. ‘남성적 위용’의 잣대로 보건대 결코 ‘영웅’일 수 없는 그는 이렇듯 “전통적 사마리아인의 방식”(U 16. 3)으로 조용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들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드는 호연장

담”(U 2. 264)만을 일삼는 무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결국, 스티븐이 찾아 헤매던 “누구에게나 알려진 그 말”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이는 바로 ‘여성적 남성’인 블룸이었던 것이다.

조이스에게 억압자들은 그가 식민 통치자이든 아니든 모두 제국주의자들이다. 인간의 의식에 깊이 스며 있는 남근중심주의, 위계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함은 곧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을 구속하는 위계적 구분의 경직된 경계를 넘나드는 블룸의 성적·인종적 모호성은 그 자체로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위협이며 그 대안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여성적인 특질”을 갖는 민족으로 상정하고, 이미 기정 사실화한 남성·여성의 가부장적 질서를 제국·식민지의 관계에 적용하면서 그들의 지배 행위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각인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조이스는 여성적인 성향의 블룸을 내세워 남성이나 여성은 이분법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모든 민족에게 양성의 속성이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 남성 또는 한 민족이 지닌 여성적 특질에서 제국의 근간인 이분법 구도에 저항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나올 수 있음도 보여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적·인종적 경계에 모두 걸쳐 있는 블룸의 모호한 정체성이야말로 타자와의 ‘벽’을 허물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른 성의 특질을 공유하지만 남성 중심적 문화는 남성 권력의 유지와 행사를 위해 스스로의 여성성을 억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룬 “단단하면서 통통하고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손”(U 17. 289-90)을 가진 블룸이 『율리시즈』의 여타 여성들, 아니 모든 인간들보다 완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양성의 속성을 겸비한 그는 타자 위에(over) 군림하려는 힘보다는 타자를 위한(for) 힘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수직적 서열로 배열하려는 가부장적 사고와 당당히 맞서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블룸에 대한 조이스의 전폭적인 지지는 『사이클롭스』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He 또는 Him으로 지칭하며 은연중에 그를 예수와 동일선 상에 놓는 재현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조이스의 이러한 의중은 “내가 저 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테다, 기필코”(U 12. 1812)라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역을 자처하는 시몬

에 의해 보다 분명해진다. 이렇듯 『올리시즈』는 레익키-윌슨(Lewiecki-Wilson)의 지적처럼, 도처에 편재된 남성의 헤게모니(male hegemony)를 그려내면서, 동시에 남근 우월주의(phallic supremacy)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블룸의 “반과 반”(half and half)이 진정한 하나, 즉 전체(whole)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lack 80).

3. 맺는 말

인간은 지금까지 이분법적 인식 구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유의 지평을 확대해왔고, 인류의 문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인식 양상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상 세계의 동일성과 차이성에 근거한 이 이원적 사고체계가 인간의 문화를 이끌어 온 사유의 기본 골격이었으니, 인식 양식 그 자체에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을 듯 싶다. 다만 이러한 사유 구도에 대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인식의 편의를 위해 순수하게 ‘이것’과 ‘저것’ 또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원적 사고 방식에 이원적 위계 질서가 접목되면서 계급과 위선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어에 실린 채 여전히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구도의 한 끝을 차지하는 지배자는 다른 한 끝에 존재하는 ‘타자’를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는 그 권력의 근거가 허구적이라는 사실, 즉 자신의 지배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회색시키기 위해 자신의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만들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 역시 제국의 ‘부당한’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려는 전형적인 식민 논리를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제국과 식민지를 가장 확연하게 구분해 주었던 ‘편리한’ 피부색의 ‘차이’가 아일랜드의 지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불편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남성을 여

성의 우위에 상정하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고를 민족간 우열논리에 투사하면서 아일랜드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제로 이용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성·여성의 단순한 생물학적인 ‘차이’에 위계적인 ‘차별’의 무게가 첨가되고 이를 다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만들어 온 것까지 ‘조작된’ 신화들이 서서히 인간의 문화 속에 각인되면서 일종의 제도로 확립된 것이다. 광대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영국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제도화한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스스로 남성적인 민족임을 표방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다. 대영 제국의 시각으로 볼 때 식민지인 아일랜드는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영역이고 ‘남성’의 보살핌을 항상 요구하는 ‘여성’이었으며 기껏해야 ‘열등한 남성’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는 남성우월주의에 경도된 남성이 바라보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성이 원망(願望)하는 여성의 전형이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남성적’ 제국인 자신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아일랜드의 ‘여성적’ 속성들을 발굴·조작·유포하면서 ‘여성적’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아일랜드에 고착시키려는 담론 행위를 펼쳐왔다. 이렇듯 그들 제국주의자들은 아일랜드라는 ‘부재’의 영역에 ‘여성’의 텍스트를 주입시키고, 그들 ‘남성’에게 봉사하는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각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제국의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지배자인 아일랜드인들 스스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제국의 이러한 계급 논리에 동화된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인들은 제국을 모방하면서 동족 사이에도 부단히 그 구분을 ‘조작’할 뿐더러, 지배자의 위치를 회구하면서 동족 위에 군림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를 내면화하게 된다. 오랜 식민 경험이 낳은 제국을 비난하면서도 닮아가는 이러한 ‘내면화된 의식’의 노예 상태야말로 탈식민을 준비하는 아일랜드가 체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였으며, 민족의 독립 열기가 한창일 즈음에 활동한 조이스가 고심했던 문제 중의 하나였다.

「씨시」의 흐름은 여성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이 되기 위해 여성들이 감내해야 할” 것들을 남성으로 전환된 벨라(벨로)로부터 지시 받는다. 남성·여성이라는 고착화된 이분법적 구도의 부조리를 극대화시켜 들추어내는 성 역할의 이러한 전도된 상황은 성의 ‘차이’를 ‘차별’로 규정짓는 인간 이성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성의 구분을 근간으로 ‘당연하게’ 자행되는 인

간 관계의 온갖 불의를 반추하게 한다. 그 불의란 다름 아닌 남성이 되는 것은 곧 지배자가 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때의 권력은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그리고 언어를 통한 성담론의 부단한 조작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남성·여성의 관계는 곧 제국·식민지의 문제로 연장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성담론이 남성 지배를 지지하는 것과 같이 제국의 식민 지배는 식민 주체를 ‘구성’하고 식민 권력의 행사를 위한 식민 담론의 끊임없는 ‘조작’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다.

탈식민화 과정은 결국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블룸은 식민지적 상황이 초래한 의식의 마비 상태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파악된다. 우선 그는 남성·여성의 엄격한 성적 이분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유형이다. 헝가리게 유대인이라는 그의 계보는 그 공통된 다인종적 속성으로 민족간의 엄격한 경계도 흐려놓는다. 그는 또한 순수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향수나 패배주의적이고 감상적인 숙명론도 거부하며, ‘지금 그리고 여기’의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중시한다. 그래서 그는 “비석(碑石)들 사이에서도 사랑”(U 6.758-59)을 발견하며 죽음까지도 삶의 중요한 양태로 끌어들이려는 긍정적인 삶의 철학을 견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취약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상대와의 조화를 통해 보완하고 포용하면서 개선해가려는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조이스가 내세우는 탈식민 주체로서의 블룸의 속성은 각자의 ‘차이’를 위계적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호 인정’의 태도로 종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탈식민을 위해 아일랜드인들에게 필요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탄력적인 삶의 태도일 것이다.

<명지대>

인용 문헌

- Black, Martha Fodaski. "S/He-Male Voices in *Ulysses*." *Gender in Joyce*. Eds. Jolanta W. Wawrzycka and Marlena G. Corcoran.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 Cairns, David and Shaun Richards. *Writing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Cixous, Helene. "Joyce: The (r)use of writing." *Post-Structuralist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Daniel Ferr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35-43.
- Doyle, Laura. "Races and Chains: The Sexuo-Racial Matrix in *Ulysses*." Friedman. 149-89.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Eagleton, Terry. "Nationalism: Irony and Commitment."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Terry Eagleton et a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 Charles Lam Markmann. New York: Grove Weidenfeld, 1967.
- _____.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0.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E. P. Dutton, 1974.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Joyce, James. *Ulysses*. Hans Walter Gabler et al Eds., Harmondsworth: Penguin, 1993.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59.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Kristeva, Julia. *The Kristeva Reader*. Ed. Toril Moi.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Lawrence, D. H. *Lady Chatterley's Lov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4.
- Lawrence, Karen. "Joyce and Feminism." Attridge. 237-58.
- MacClintock, Anne.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xt*. New York: Routledge, 1995.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1980.
-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Feminist Literary Theory*. London: Routledge, 1995.
- Nandy, Ashis. *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O'Brien, Marie and Conor Cruse O'Brien. *A Concise History of Ireland*. 3r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 Said, Edward W. "Representing the Colonized: Anthropology's Interlocutors." *Critical Inquiry* 15(Winter 1989): 205-25.
- _____. "Yeats and Decolonization." Terry Eagleton et al. 69-95.
- _____.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93.
- _____.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1978.
- Schwarz, Daniel R. ed. *James Joyce: The Dea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_____. "Introduction: Bi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s." Schwarz. 3-20.

Wawrzycka, Jolanta W. et al eds. *Gender in Joyc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Young, Robert J. C.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Abstract**A Study on Leopold Bloom's Human Type**

Moonsook Kim

This thesis explores Joyce's critique of colonial domination and seeks for the ways to get out of this miserable condit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womanly man", Leopold Bloom in *Ulysses*.

The British defined the Irish as a feminine race and applied the rules and regulations which were commonly imposed on them as a nor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n a patriarchal society. They did so because this binarism is the basic principle of imperialism as well as the patriarchal value system. So the terms domination and suppression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British empire' and 'the colonial Ireland' in their struggle with the union to 'male' and 'female' without changing the issues of marginality.

But the problem is that this binary thought was internalized by the colonized Irish themselves. They equated the feminine with something wrong, negative and powerless, trying to impute historical wrongdoing to women and to exonerate themselves from colonial oppression. Women were thus doubly colonized in Ireland by the Irish males as well as by the British empire. But Joyce refutes this reductionism by exposing and subverting the fictitiousness of the colonial and patriarchal discourse. Joyce's writing acknowledges the current potency and miserable legacy of binary thinking in both imperialism and patriarchy, and seeks for the ways of breaching the oppositional logic by which we are all constrained.

Joyce systematically subverts the code of imperial sexuality, which contributes to the justification of imperialism and suggests alternative sexual

politics for the colonized people. He chooses Bloom, a Jew with feminine characteristic as one of the main characters in his works to overcome this fictitious binary thinking of the empire. Unlike most Irishmen as illustrated in the Citizen in "Cyclops", who impute all the troubles of their country to the feminine weakness and try to fight against the British by recovering their masculinity, Bloom, with his hybrid identity and free of this dichotomized thinking, doesn't solely blame Molly for her adultery with Boylan. In short, he recognizes his responsibility for what it is and tries to improve the present condition. Besides, Bloom intends to emphasize the common history of persecution which the Irish share with the Jews and tries to awaken them from mimicking the empire to a sense of "injustice." Bloom's assertion of "injustice" surpasses narrow nationalism. For Joyce, 'nationalist' oppressors are in a sense collaborators of imperialism.